



높은 분이 또 오신다고요?

| 이성재

주요 등장 인물 소개

비상대책 반장 <50대 초반, 본연의 업무에 충실하는 성실한 공무원>

구청직원 1,2 <40대 초반, 상사의 지시에 생각없이 복종만 하려는 공무원>

비상대책반 직원들 <20~30대, 성실한 공무원들>

시놉시스

1. 기획의도

관행화된 갑질 문화와 권한의 과도한 행사로 조직이 겪는 부조리를 알리고자 한다.

직장인이라면 누구나 한번쯤을 겪어 보았을만한 내용을 약간 과장된 스토리 전개로 재미있고 이해하기 쉽게 전개되도록 노력하였다.

수해피해가 발생한 작은 마을에 구성된 '비상대책본부 공무원들'이 상급부서의 '구청 공무원들'이 행하는 부당한 갑질 행태와 불필요한 의전 때문에 겪는 부조리를 통해 잘못된 관행의 폐해를 알리고자 한다.

2. 줄거리

수해피해가 발생한 시골 작은 마을 비상대책본부 공무원들이 수재민들을 돕고자 바쁘게 일하고 있다. 수재민들 수에 비해 이들을 지원하는 공무원 수는 턱없이 부족하지만, 공무원들은 자원봉사자와 함께 잠자는 시간까지 즐기며 수재민들 지원에 여념이 없다.

어느날 구청장이 수해피해가 발생한 마을을 방문하고자 하고, 구청 공무원들은 비상대책본부 공무원들에게 과도한 의전을 요구한다. 형식적이고 불필요한 직원 치하 행사와 현장 사진 찍기, 과도한 식사 대접 등 가뜩이나 일은 많고 일손은 부족한 상황에 더더욱 힘든 상황을 맞이하게 된 비상대책본부 공무원들은 처음에는 구청 공무원들에게 반발도 해보지만 상급부서의 명령이라 어쩔 수 없이 그들의 요구를 수용하게 된다.

많은 우여곡절 끝에 구청장 방문 행사는 끝이 나고, 다시 수재민 지원에 나서려고 의기투합하던 공무원들에게 또 다시 청천벽력같은 소식이 전해진다. 지역 국회의원과 구의회 의원들도 수해현장을 방문하겠다는 것이다. 그들 역시 구청장이 했던 대로 과도한 의전을 요구하고 나섰다.

수재민을 위한 비상대책본부인지, 보여주기식 행정에 열을 올리는 '높은 분'들을 위한 비상대책본부인지 모호한 상황이 계속되면서 이야기는 마무리 된다.

S 1. 수해(水害) 현장 대책 본부

- 넓은 창고 같은 건물에 사무실이 차려져 있다.
- 사무실 안에 있는 직원들(공무원들)은 분주히 움직이고 있다. 모두들 여기저기 전화를 하고 받고, 컴퓨터에 뭔가를 분주히 입력하고, 모여서 회의를 하는 등 바쁘게 움직이고 있다.
- 사무실 밖에는 비가 쏟아지듯 오고 있다.
- 사무실 한쪽에 '대책반장' 명패가 보이고, 명패가 있는 책상에 앉아 있는 대책 반장이 서류를 보고 있다. 옆에는 부하직원(공무원) 두 명이 서있다.

대책반장 : 수재민들은 계속 발생하는데 이 분들 머물 곳이 부족해 야단이군.

부하직원1 : 지금 학교 강당에 텐트를 더 배치하고 있습니다. 다행히 학교에서 협조적으로 나와 업무 진척이 빠릅니다.

부하직원2 : 여기저기서 구호품 지원도 원활합니다. 경제사정도 어려운데 고마운 사람들이 많습니다.

대책반장 : 일기예보를 보니 비가 쉬어 그치질 않는다고 하는군. 앞으로 수재민들이 더 생길거야. 미리미리 대비를 해놓도록. 그리고 비가 그치는 대로 수해현장 복구에 박차를 가하도록 하게.

부하직원1 : 네, 최선을 다해야죠. 그런데 일손이 부족해 정말 걱정입니다. 공무원들이 다 수해현장에 투입되어 일하고 있지만 일손이 턱없이 부족합니다.

부하직원2 : 그래도 다행인 게 이 동네 수해피해가 방송이 많이 나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덕에 자원 봉사자들이 방송을 보고 도움을 주고 있어요. 앞으로도 더 많은 자원봉사자들이 올 것 같습니다.

대책반장 : (반색을 하며) 그거 정말 다행이네. 수해 피해와 수재민은 계속 늘어나는데, 인력이 없어 얼마나 걱정이 많았는가? 정말 다행이야, 정말 다행이라고.

- 계속 실새없이 전화벨이 울리는 대책본부

- 여전히 사무실 내 직원들은 전화를 받고 응대하기에 바쁘다.

- 한 직원이 전화를 받던 후 자리에서 일어나 급하게 대책반장을 향해 말한다.

직원 1 : 반장님! 마을 양로원까지 물에 잠겼습니다. 그리고 김정례 할머니 집도 곧 물에 잠길 것 같아 직원들이 할머니 집에 급히 가고 있다고 합니다.

대책반장 : (혀를 차며) 그 할머니 자식들 다 외국가고 그 나이에 혼자 사시는데 고생이 이만저만 아니네. 그래, 빨리 가서 도와드리게. 일단 할머니는 마을 초등학교 강당 텐트에 모시도록 하고. 아직 자리는 있지?

직원 2 : (급히 전화를 끊으며) 반장님! 마을 입구 쪽에 있는 길 있죠? 산 아래 있는 길 말입니다. 지금 그 길가 옆 산에서 산사태가 우려됩니다. 현장에 있는 직원이 급히 연락을 했습니다.

대책반장 : (놀라며) 산사태? 이거 큰일이구만. 일단 그 도로 당장 통제토록하게! 직원을 보내 우회도로로 안내하도록 해! 절대 차들이 그곳으로 지나가게 하면 안돼!

직원 2 : (우물쭈물하며) 그런데 지금 그곳에 통제하고 안내할 직원이 없어서……. 다들 수재민 구조하고 지원하는 현장에 가서 말이죠. 사실 수재민 구조와 지원하는데만도 인력이 부족합니다.

대책반장 : (잠시 생각하다가) 그래도 어떻게든 인력 좀 뽑아서 산사태 우려 현장에 보내도록 해봐! 산사태 나서 인명피해라도 나면 이거 정말 큰일 아닌가?

S 2. 수해(水害) 현장

- 비가 쏟아지는 마을.
- 공무원과 자원봉사자들이 마을 주민들을 안전하게 대피시키는 모습이 보인다.
- 산사태 예상 현장에도 공무원들이 가서 차량 통제하는 모습이 보인다.

S 3. 초등학교 강당 (수재민 피난처)

- 강당에 질서정연하게 들어선 수재민 거주 텐트가 보인다.
 - 수재민들에게 음식과 담요 등 생필품을 전달하는 공무원과 자원봉사자들의 분주한 모습이 보인다.
- 공무원1 : (자원봉사자들의 모습을 보며 흐뭇하게) 어휴, 자원봉사자들이 없으면 어쩔 뻔 했어?
- 공무원2 : 네, 수재민들은 계속 늘어나고, 우리 공무원 인력 가지고는 감당이 안 됐을 겁니다. 참 고마운 사람들이네요.
- 공무원1 : 그나저나 구청에서는 뭐하는 거야? 가뜩이나 바쁜데 상황보고 하라고 독촉이나 하고, 필요한 지원인력은 보내 줄 생각은 하지 않고 말이야.
- 공무원2 : 그런 말씀 마세요. 지원인력 와도 골치 아픕니다. 솔직히 지원해준다고 와서 이거 해달라, 저거 해달라 지시만 하지 도 움이 되질 않아요. 인원이 아무리 없어도 그냥 우리 군청직원과 자원봉사자들이 하는 게 훨씬 나아요.

S 4. 수해(水害) 현장 대책 본부

- 여전히 바쁘게 돌아가는 사무실 안
 - 전화 통화를 하던 부하직원1이 전화를 끊고 한숨을 한번 쉰 후 대책반장에게 다가간다.
- 부하직원1 : (매우 망설인다) 저…….
- 대책반장1 : 왜? 무슨 일이야?
- 부하직원1 : 구청에서 연락이 왔는데요. 내일 모레 오전에 구청장님이 직접 이곳 대책본부를 방문하신답니다.
- 대책반장 : (놀라면서도 짜증난다는 표정) 뭐? 구청장님이?
- 부하직원1 : …….
- 대책반장 : 이거 야단이구만. 안 그래도 현장이 바쁜데 구청장님이 온다면……. (답답한 마음에 한숨 한번 내신다)
- 부하직원2 : 구청장님 오면 이것저것 준비하느라 정신이 없을텐데……. 수해현장은 어떡하죠? 우리 구청장님 의전에 엄청 민감한 양반인데.
- 부하직원1 : 어찌겠어? 상급부서에서 하라면 해야지. 젠장!
- 대책본부 안 직원들 모두 짜증스런 한숨을 쉰다.
 - 사무실 창문을 통해 비가 쏟아지는 밖의 모습이 보인다.

S 5. 수해(水害) 현장 대책 본부 (다음날 아침)

- 여전히 바쁘게 돌아가는 사무실 안.
 - 양복을 말쑥하게 차려입은 구청 직원 2명이 사무실 안으로 들어온다. 구청직원1 : (거만한 태도) 구청에서 나왔습니다. 대책반장님 있습니까?
- 대책반장 : (짜증나는 표정을 애써 감추며) 어서 오십시오. 내가 대책반장입니다. 자리에 앉으시지요.
- 잠시 후 대책반장 자리 옆에 있는 탁자에 앉아 차를 마시는 대책반장, 부하직원1, 구청직원1,2
- 구청직원1 : (서류를 대책반장과 부하직원들에게 건넨다) 이미 통보해 드렸듯이, 내일 오전에 구청장님 이 여기 수해현장을 방문할 예정입니다. 이것은 내일 구청장님 방문에 대한 구체적인 일정표입니다.
- 일정표를 보는 대책반장과 부하직원 얼굴에 근심과 짜증이 섞인 표정이 드리운다. 구청직원들은 그 표정을 보고서도 모른 척 한다.
- 대책반장 : 그럼 구청장님께서 내일 오전 10시에 일단 사무실을 방문한 후, 수해 피해 및 대책에 대한 브리핑을 받으신 후, 직원들과 일일이 악수하며 노고를 치하하겠다는 거군요.
- 구청직원1 : (거만한 태도) 네. 그렇습니다.
- 부하직원1 : (일부러 구청직원 들으라고 비아냥 거리는 목소리로) 이거 뭐, 내일 오전에 일하긴 틀렸구만. 안 그래도 일손이 부족해 난리인데. 수재민들 불쌍해서 어떡하나?
- 구청직원1, 2가 부하직원 1을 노려본다. 부하직원1은 모르는 척 탄전을 피운다.
- 구청직원2 : (냉정한 태도로 대책반장을 보며) 직원들과 악수를 하고 난 뒤에 구청장님이 직접 현장에 나가 상황을 점검하겠다고 합니다.
- 대책반장 : 점심은?
- 구청직원2 : 당연히 대책반에서 준비하셔야죠. 인근에 음식 잘하는 식당을 섭외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님과 수행인원을 합치면 11명 정도 됩니다. 여기 대책반원들 한 5~6명 참석해 주시죠. 물론 대책반장님은 당연히 참석하셔야 하고요. 기자들도 한 6~7명 참석할 예정입니다.
- 대책반장 : (짜증나는 표정을 애써 감추며) 20명이 넘는 사람이 한꺼번에 들어갈 수 있는 식당을 예약해야겠군요.
- 부하직원1 : (대책반장에게 말하지만 사실은 구청직원들 들으라는 하는 말이다. 여전히 빈정대는 말투로) 반장님! 이 작은 동네에 그렇게 큰 식당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 식당 알아보려면 직원들 동원해서 여기저기 알아봐야 하는데, 그럼 수재민들은 누가 돌보니까? 안 그래도 지금 인력이 부족해서 난리인데 이래도 되는 겁니까?
- 대책반장 : (난감한 표정)
- 구청직원1 : 좀 멀어도 상관없습니다. 기자들도 같이 식사하는 자리니 구청장님 체면도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메뉴는 소고기가 적당할 듯 합니다.
- 부하직원1 : (구청직원을 향해 흥분한 말투로) 지금 수재민이 우선이지 구청장님 체면이 문제입니까? 수재민들은 컵라면으로 끼니를 때우는데, 구청장님은 소고기 먹겠다고요? 야! 정말 좋네. 그러니까 서로들 구청장 하려고 난리지, 난리야!
- 구청직원1이 발끈하자 구청직원2가 막는다.
 - 구청직원2 화제를 바꾸려 사무실을 한번 둘러본다.
 - 구청직원1은 부하직원1을 계속 노려보지만, 부하직원은 스마트폰을 보는 등 탄청을 피우며 이를 무시한다.
- 구청직원2 : 그리고 오늘 중으로 사무실 대청소 좀 해야겠습니다. 구청장님이 오시는데 이런 상태에서 맞을 수는 없는 일 아니겠습니까? 더구나 기자들도 오는데 말이죠. 내일 구청장님이 오실 때 모든 직원들 유니폼을 입도록 하세요.

부하직원1 : (황당해하며) 아니 지금 날도 덥고 비가 쏟아져 이렇게 후덥지근한데 긴팔 유니폼을 입으라고요? 더워서 일은 어떻게 합니다? 다시 말하지만 지금 수재민들이 중요하지……

- 대책반장이 손을 들어 부하직원1을 말하는 것을 막는다.

대책반장 : (시름이 담긴 깊은 한숨을 한번 내쉬고) 내 솔직히 말하겠소. 아시다시피 지금 이쪽 수해 피해가 이만저만이 아니요. 여기 대책반은 부족한 일손을 최대한 움직이며 수재민들을 돕고 있어요. 그나마 자원봉사자들이 도움이 있기에 가능한 일이고. 과장된 표현이 아니요. 직원들 화장실 갈 시간도 부족할 정도요. 점심도 여기 대책반에 임시로 마련된 구내식당에서 대충 먹고, 쉬지도 못한 채 다시 수재현장에 나가서 수재민들을 돕고 있습니다.

구청직원1 : 하시고 싶은 말이 뭐니까?

대책반장 : 지금 구청장님을 의전할 여유가 솔직히 없어요. 그러니 최대한 간소하게 합시다.

구청직원2 : 간소하게 라고요?

대책반장 : 그렇소!

구청직원1 : 어떻게 하자는 말씀인가요?

대책반장 : 의전을 최소화 하자는 것이요. 일단 구청장님이 방문하시니 브리핑은 철저히 준비하겠소. 다만 지금 직원들이 수재민 지원에 너무 바빠 사무실 대청소할 여력이 없으니 대청소는 생략합니다.

구청직원1 : (뼈뚫한 시선으로 대책반장을 보며) 대청소를 생략하자…….

부하직원1 : 그리고 점심 식사도 구내식당에서 간단하게 하지요. 이 근처 비가 많이 와서 식당 대부분 이 문을 닫았어요. 식당을 알아보려면 직원들이 시간을 내서 멀리 나가봐야 합니다. 그리고 이 시골에 비싼 소고기 파는 식당을 찾는게 쉬운 일도 아니고요.

대책반장 : 그리고 수해현장 방문은 생략합니다. 지금 적은 인력으로 수해현장을 복구하느라 직원들 정신이 없어요. 구청장님이 수해현장을 방문한다면 최소한의 준비는 해야하는데……. 다시 말하지만 인력이 지금 턱없이 부족합니다. 구청장님이 수해 지역에 관심을 가져주는 건 고마운 일이지만, 지금 우리 사정이 이렇소.

- 대책반장, 부하직원1, 구청직원1, 2 사이에 잠시 어색한 침묵이 흐른다.

- 이윽고 구청직원1이 어색한 침묵을 깨고 말한다.

구청직원1 : (대책반장을 보며 한심하다는 표정으로) 참 순진하시군요. 그래도 공무원 생활 저보다 10년은 더 하신 분이랴 뭘 좀 아실거라 생각했는데 말입니다.

부하직원1 : 말이 좀 지나친 것 같습니다.

- 대책반장이 손을 들어 부하직원1을 저지한다.

구청직원1 : 우리 똑 끼놓고 얘기합니다. 내년엔 지방선거가 있어요. 구청장 선거가 있던 말입니다. 우리 구청장님은 재선을 생각하고 계시고요. 솔직히 말해 지금 이렇게 좋은 기회가 어디 있겠습니까? 수해가 난 관할지역을 구청장이 일일이 방문하며 수재민들 챙기는 모습이 매스컴을 통해 지역주민에게 알려져 봐요. 그 효과가 어떨지는 굳이 말하지 않아도 되겠죠? 그래서 기자들도 어렵게 부른 겁니다. 그리고 손님 불러다 놓고 식사 대접 소홀히 해서 되겠습니까? 대한민국 인심이 그렇진 않잖아요?

부하직원1 : 말은 참 잘 하십니다. 그럼 하나 물어보지요. 지금 수재민이 우선입니까? 구청장님이 우선입니까?

- 구청직원1, 2 부하직원1을 노려보지만, 부하직원1도 그들의 눈빛을 피하지 않고 같이 노려본다.

대책반장 : (잠시 생각하다 어쩔 수 없다는 표정을 지은 후 한숨을 쉰다) 알겠소.

구청직원1 : (아비한 미소를 지으며) 네, 감사합니다. 그럼 저희도 그만 가보겠습니다.

- 구청직원1, 2 대책본부 사무실을 나간다.

- 대책반 직원들 모두 한숨을 쉬고, 어떤 직원은 화가 나서 구청직원이 나간 문을 향해 손가락 욕을 한다.

부하직원1 : 귀신은 뭐하나? 저런 인간들 데려가지 않고.

공무원1 : 비가 오니까 귀신도 쉬려나 보지. 요즘 귀신 팔자도 좋아. 우리 구청장보다 팔자가 더 좋은 것 같아.

- 대책반 공무원들 모두 한바탕 웃음을 터뜨린다.

- 대책본부 창문을 통해 비가 쏟아지는 바깥 풍경 보여진다.

S 6. 수해(水害) 현장

- 쏟아지는 빗속에서 사람들을 대피시키느라 분주히 움직이는 공무원들.

- 공무원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하고 대피소로 향하는 차에 오르는 주민들.

S 7. 대피소

- 큰 강당에 수십개의 텐트가 보인다.

- 텐트를 돌아다니며 생필품들을 배달하는 공무원들

- 공무원들에게 감사하며 인사를 건내며 미소를 짓은 수재민들

S 8. 수해(水害) 현장 대책본부 회의실

- 회의실에 대책본부 직원들이 모두 모여있다.

- 메인석에 대책반장이 앉아 있다.

부하직원1 : 공식석상에서 할 말은 아닙니다만 우리 구청장님 미친 거 아닙니까? 수재민들 지금 고생이 이만저만이 아니고, 우리는 일손이 모자라 잠을 줄여가며 일하고 있는데, 자기는 지금 다음 선거 생각이나 하고 말이지요. 그런 사람이 우리 동네 구청장이라니……. 나 원 환장하겠구만.

- 대책반장을 비롯한 직원들 침통한 표정으로 말이 없다.

대책반장 : (짜증나는 표정을 애써 감추며) 뭐 어찌겠나. 속된 말로 까라면 까야지. 달리 방법이 없지 않나.

- 직원들 모두 말이 없다.

공무원1 : 그래도 지금 우리 상황이 말이 아니지 않습니까? 수재민은 계속 늘어나는데 일손이 턱없이 부족해요. 산사태 예상 도로에 나가 통제하는 직원도 지금 최소한의 직원으로 하고 있습니다. 어디 그뿐입니까? 초등학교 강당에 텐트 치고 머물고 있는 수재민은 어떡하고요? 지금 거기 머무는 수재민들 식사 준비하는 것도 버거운 상황입니다. 자원봉사자들도 조금씩 짜증을 내고 있어요. 당연하죠. 일이 보통 많은 게 아니니까요.

공무원2 : 수해현장이 더 문제입니다. 산 아래 있는 집, 강 주변 집, 노약자들만 사는 집, 거기 사는 모든 주민들은 모두 우리가 보살펴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구조 손길만 기다리고 있어요. 그런데도 우리가 제대로 구조해주지 못하고 있어요. 인력이 부족하니 정말 어쩔 수 없어요. 이런 상황인데 지금 구청장 의전하는데 또 신경을 써야 하니……. 나 정말 미치겠네.

- 회의실에 적막이 흐른다.
- 회의실내 직원들 모두 짜증스런 표정을 짓고 있다.
- 잠시 후 대책반장이 결심한 듯 말한다.

대책반장 : 자, 이렇게 하지. 광 주무관과 최 주무관이 식당을 좀 알아봐주게. 박 주사하고 김 주사는 수재민들이 대피한 강당에 가서 구청장 방문시 동선 계획 좀 잡고. 그리고 오 주무관은 전체 계획 좀 잡아주게. 시간별로 구청장 이동 계획을 파악해서 거기에 맞춰서 계획 잡아야 하네. 그리고 사진은 문미희 사원이 좀 찍어주고.

부하직원2 : (짜증난다) 이게 뭐하는 일입니까? 정말! 할 일이 태산인데. 브리핑 준비하느라고 보고자료 준비해야지, 사무실 대청소 해야지. 대피소 가셔도 청소하고 생필품 보기 좋게 쌓아놓고 사진 잘 나오게 준비해야지. 나 원 참. 자원봉사자들 보기 꼭 팔립니다, 꼭 팔려!

직원1 : 정말 안 오는데 도와주는 거예요. 그냥 두면 우리가 알아서 다 할텐데. 그게 수재민들에게도 훨씬 도움이 돼요. 높은 사람 온다고 거기에 신경쓰다 보면 진짜 해야 할 일을 못하게 되요.

직원2 : 높은 사람도 높은 사람 나름이야. 그냥 와서 직원들 격려하고, 애로사항 듣고, 지원할 내용 파악해서 지원해주면 돼. 그렇게 현장 직원들을 도와주는게 높은 사람 할 일이라고. 그런데 지금 구청장은 문제야. 이거 완전히 자기를 위해서 수해현장 오겠다는 것 아냐?

- 직원들의 울바른 소리에 대책반장 아무말 없이 심각한 표정으로 앉아만 있다.

S 9. 수해(水害) 현장 대책본부 (다음 날)

- 구청장과 수행원들이 대책본부를 방문한다.
- 구청장은 과장된 몸짓으로 직원들과 악수하고, 대책반장의 브리핑을 받는다. 대책반장 표정이 어둡다.
- 기자들 연신 카메라 셔터를 눌러댄다.
- 대책반원 직원들은 짜증스런 표정을 감추지 못한다.

S 10. 음식점

- 즐거운 표정으로 소고기를 먹는 구청장과 수행원, 기자들.
- 합석한 대책반장 및 직원들 무표정 또는 짜증스런 표정으로 식사를 한다.

공무원1 : 수재민들은 지금 제대로 잠도 못자며 라면으로 끼니를 때우는데 구청장은 소고기가 입에 넘어가나?

공무원2 : 잘만 먹고 있네, 뭐. 구청장도 구청장이지만, 같이 온 구청직원들이 더 맛있게 먹네. 오늘 예산 초과되겠어. 그리고 저 기자놈들 좀 봐라. 아예 맥주까지 한잔 걸치고 있구만.

기자 : 어이, 아줌마! 여기 고기 좀 더 줘요. 그리고 육회 좀 없어요? 있으면 좀 줘요!

공무원3 : (들리지 않게 작은 목소리로) 좀 작작 처먹어라!

S 11. 수재민 대피소

- 강당 텐트 사이를 오가며 수재민들과 악수를 하는 구청장. 여전히 기자들은 카메라 셔터를 눌러대고.
- 구호물품 앞에서 사진을 찍는 구청장과 일행 등
- 구청장 일행이 대책반 직원들에게 사진을 같이 찍자고 하나 아무도 가지 않는다. 구청장과 일행 멀썩해한다.

S 12. 수해(水害) 현장 대책본부 회의실 (그날 저녁)

대책반장 L : 일단 골치 아팠던 일은 지나갔습니다. 이제 수해현장 복구와 수재민들 지원을 위해 진짜로 일을 할 시간입니다.

부하직원1 : 에이! 빌어먹을. 열심히 일 하는 놈 따로 있고, 그 옆에서 복치고 노는 놈 따로 있고 말이야. 고생은 우리가 다 하고, 그 공은 구청장이 다 가져가는 꼴이 되었어.

부하직원2 : 참아! 우리가 뭐 남들이 알아주길 바라고 일하는 건 아니잖아.

직원1 : 정말 피곤한 하루였습니다. 짜증도 났고요. 오늘 하루는 우리 모두 구청장을 위해 일한 하루였습니다. 수재민들을 위한 하루가 아니었고요.

직원2 : 저도 정말 짜증 났어요. 지금 내가 뭐하는가 싶기도 하고요. 하지만 이제 지난 일이에요. 내일부터는 제대로 일할 수 있어 다행입니다.

직원3 : 우리 구청장은 정말 안 오는데 도와주는 겁니다.

직원1 : 아까 낮에 식당에서 소고기 먹는 꼴 봤어? 정말 대단하더라고. 이 상황에서 어쩌면 그렇게 음식이 목구멍으로 잘 넘어가던지. 기자놈들이 한 술 더 뜨더라고. 술까지 마시며 아주 잔치 벌이는 분위기더라고.

대책반장 : 자, 자! 이제 지나간 일은 잊자고. 지금부터는 우리의 손길을 기다리고 있는 주민들만 생각하고 말이야. 자, 내일 할 일을 지금부터 정리하고, 차근차근 해결해 나가자고.

부하직원1 : 반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지나간 일 생각해봤자 뭐하겠어요? 기분만 나쁘죠. 우리 반장님 말씀대로 툭툭 털고 앞으로 할 일만 생각하자고. 남이 뭐라던 우리는 우리 할 일만 열심히 하면 돼!

- 회의실 내 직원들 밝은 표정으로 내일부터 해야 할 일을 의논하기 시작한다.

대책반장 : 그러니까 박 주무관은 자원봉사자들과 같이 초등학교에 기거하는 수재민들 식사 챙기고, 오 주무관은 의사들이 아픈 사람들 진료하는 것 협조해 주도록 하게. 의사들 고생 많은데 식사 잘 챙겨주도록.

부하직원1 : 저는 내일 수해현장 돌면서 아직 집에 남아있는 주민들 살펴보겠습니다. 위험하다 싶은 집 주민들은 초등학교 강당에 대피시키고요.

공무원1 : 그 일이 만만치 않을 겁니다. 저랑 같이 구역을 나누어서 살펴보도록 하죠. 산사태가 우려되는 지역도 같이 살펴봐야 하고요.

- 회의실 내 직원들 업무에 모두 집중하며 얘기하고 있는데, 누군가 회의실 문을 두드린다.

부하직원1 : 누구지? 회의 중인데…….

대책반장 : 들어오세요!

- 직원3이 어두운 표정으로 문을 열고 조심스럽게 들어온다.

직원3 : 회의 중인데 죄송합니다. 중요한 일이라서…….

대책반장 : (뭔가 불길한 기분) 무슨 일인가?

직원3 : 저…….

부하직원1 : 뭔데? 어서 말해봐!

직원3 : 방금 연락이 왔습니다. 이 지역 국회의원이 내일 모레 오전 여기 대책본부를 방문한답니다.

회의실 내 직원 모두 : (일제히) 또?

직원3 : 모든 준비를 구청장이 왔을 때처럼 해달라고 합니다.

부하직원2 : 구청장이 왔을 때처럼?

직원3 : 네. 그 때와 같이 직원들과 악수하고 브리핑 받고, 점심 식사하고. 그리고 점심은 구청장이 들렀던 그 소고기집으로 꼭 해달라고 합니다. 거기 소고기가 맛있었다는 얘길 들었다고 하면서요. 그리고 점심 먹고 수재민 대피소에 들어서 구호품 앞에서 사진을 찍을 계획이랍니다.

부하직원1 : 완전 자기 홍보하기 위해 오는 거구만. 정말 바쁜데 이거 미치겠네. 수재민들 지원은 언제 하나고? 언제?

부하직원2 : 정말 너무들 하는구만.

- 누군가 또 회의실 문을 두드린다.

- 대책반장이 들어오라고 하자 직원4가 어두운 표정으로 들어온다.

직원4 : 회의중인데 죄송합니다. 상부에서 급한 내용이 와서…….

대책반장 : (또 불길한 기분으로) 뭔가?

직원4 : 사흘 후 오전에 구의원들이 이곳 대책본부를 방문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준비는 구청장이 왔을 때와 똑같이 해달라고 합니다. 특히 점심은 꼭 오늘 갔던 소고기집으로 예약하라고 합니다. 다만 대피소에 가서 사진 찍을 때 이번에는 구호물품 앞에서 사진을 찍지 않고 수재민들과 사진을 찍을 예정이니 준비해 놓으라고 하네요. 특히 어린 아이들과 같이 찍도록 해달랍니다.

- 대책반장을 비롯한 회의실 내 직원들 모두 짜증의 한숨을 쉰다.

부하직원1 : 수재가 나서 아주 신났구만, 신들이 났어!

부하직원2 : 아니, 자기네들 수해현장 구경시키자고 비상대책반이 있는 줄 아나 보지?

직원 1 : 아니, 수재민들을 위한 일은 언제 합니까? 이거 정말 야단났네.

- 그 때 또 회의실 문 두드리는 소리가 난다.

- 회의실 안에 깊은 정적이 흐른다.

- 회의실 문 두드리는 소리 다시 들린다.

대책반장 : (깊은 한숨을 쉰 후 짜증스런 표정으로) 또 높은 분이 오시나?

<끝>